

4/14/19

설교 제목: 금식 논쟁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2장 18-22

(막 2: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막 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막 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절관주** 전 3:1

(막 2: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막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 일하던 레위(마태)를 부르셔서 제자의 무리에 합류시킨
후 며칠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막 2: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대답하시고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과의 금식에 대한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이들을 가리켜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은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란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들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니 자신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눈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애통함이 없는 것으로 비쳐졌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일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 23: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3:27)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레 23:28)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레 23: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레 23:30)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레 23:31)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 23:32) 이는 너희가 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속죄일 외에도 여러 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전통과 관습으로 지켜 내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 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종교 의식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반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새 날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혼인 집의 신랑과 손님과의 비유를 들어 밝히십니다.

(막 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으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혼인 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신랑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이 잔치에 가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서 금식은 속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는 회개이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은혜가 내려지길 간구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속죄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실 바로 그 분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사실 금식과 같은 규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히 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 9: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참으로 슬퍼하고 금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혼인 집 손님들 비유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둘째, 율법과 전통, 유전, 관습 등등 종교의 형식과 모양만을 중요시하고 지킴으로 이미 도래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삼베 조각의 비유를 드십니다.

(막 2: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마 9: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마태와 마가는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대고 기우면 새 옷 조각이 낡은 천을 잡아 당기어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여기에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눅 5: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누가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깎는 것은 새 옷만 찢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 옷은 복음을, 헌 옷은 율법 전통 관습 유전 등을 비유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 관습 유전 등을 중요시하여 율법과 전통 관습 유전 하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래한 새 시대의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긴 하였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가진 복음 의식이란 것이 구약의 율법 전통 관습 유전 하에서 만들어 놓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도 위에 접목시켜 놓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구약의 율법 주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신앙은 결코 새 시대의 복음을 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잠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율법과 전통, 유전, 관습 등의 제도에 얽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배, 연보, 봉사, 전도, 사역 등등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 율법과 전통 유전 관습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시킵니다.

(딤후 3:5)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은혜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망의 법인 율법과 전통 유전 관습으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메시아 신앙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드십니다.

(막 2: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태와 누가도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9: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눅 5: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눅 5: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눅 5: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포도주를 넣는 부대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 그것이 발효하여 부풀면 터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상 즉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상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율법적이고 형식적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율법적이고 형식적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정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현재 실상을 일깨워 주십니다.

(눅 5: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 관습 유전 등의 형식적 신앙에 맞들어 있어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규정과 같은 전통과 제도를 지키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 생활에 젖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전통과 관습 유전 등등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